

急驚風の 病因病理에 對한 文獻的 考察

李熙晟* · 李在媛** · 金英信*** · 金德坤****

I. 緒 論

驚風은 小兒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救急證의 하나로 감각스러운 意識喪失과 더불어 痙攣을 일으키는 病症이다. 그 病勢가 急迫하고 危殆로와 小兒疾之最危者 無越驚風之證 吉凶反掌 變生瞬息이라 하였다.³⁾

小兒는 臟腑가 薄弱하며 血氣는 充分하지 못하고 神氣도 實하지 못하므로 肝·心氣常有餘하는 臟腑生理的인 理由와 外感 및 乳食傷에 依해 쉽게 驚風이 發生하게 된다. 따라서 嬰幼兒일수록 驚風의 發生率이 높아 보통 1歲부터 5歲 사이에 多發하고 7歲 以上되면 漸次 減少한다.^{16,23)}

驚風은 宋代 以前에는 癩과 區分없이 混用되었으며 宋代에 이르러 太平聖惠方²⁰⁾에 처음으로 急驚風이라고 單一病證으로 記錄되었으며 北宋때 錢²²⁾은 驚風을 病名으로 確立하여 急驚風과 慢驚風으로 分類하였다. 그 후 驚風이 小兒科 四大證의 하나로 그 重要性이 認識되면서 諸家들에 의해 各說이 主張된바 그 範圍 및 分類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病因病理에 있어서도 各其 相異한 點이 많다.

驚風은 現在에 이르러서도 小兒科 臨床領域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크며 身體壯熱 兩眼直視或斜視 口脣撮動 牙關緊閉 痰鳴氣促 頸項強直 四肢抽搐 或 持續不已 等の 危急症狀들²⁰⁾이 暴急하게 나타나는 疾患으로 이에 對한 救急法 및 治療對策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 나아가 韓方治療로 높은 治療效果를 얻을 수 있으므로 驚風에 對한 韓醫學的 研究는 臨床的 意義가 크다. 이에 筆者는 驚風에 對한 體系的 理解를 위해 急驚風의 病因病理에 對한 文獻的 考察을 한 結果 약간의 새로운 知見을 얻은바 發表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黃帝內經素問 奇病論編⁴⁾

帝曰 人生而有病巔疾者 病名曰何? 安所得之?

岐伯曰 病名爲胎病 此得之在母腹中時 其母有所大驚 氣上而不下 精氣竝居 故令子發爲巔疾也.

2. 巢氏諸病源候論¹⁰⁾

小兒驚者 由血氣不和 熱實在內 心神不定

* 서울 성행韓醫院

** 慶山大學校 附屬韓方病院

*** 서울 건계韓醫院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所以發驚 甚者掣縮 變成癇。

3. 太平聖惠方²⁷⁾

夫小兒急驚風者 由血氣不和 夙有實熱 爲風邪所乘 干於心絡之所致也。心者神之所舍 主於血脈。若熱盛則血亂 血亂則氣并於血 氣血相并 又被風邪所搏 故驚而不安也。

4. 小兒藥證直訣²²⁾

因聞大聲或大驚而發搐 發過則如故 此無陰也。小兒急驚者 本因熱生於心 身熱面赤引飲 口中氣熱 大小便黃赤 劇則搐也。蓋熱甚則風生 風屬肝 此陽盛陰虛也……小兒熱痰客於心胃。因聞大聲非常則動而驚搐矣。若熱劇雖不聞聲乃驚 亦自發搐。

5. 張 漢論¹⁷⁾

小兒心神多不定 胞絡多種痰涎 逐生邪熱 若熱盛 干於心神 兼外傷風邪客搏 使遍身壯熱 痰涎壅滯 四肢抽掣 牙關緊急 名曰急驚風病。

6. 河間三六書¹⁸⁾

小兒驚風者 皆由心火暴甚而制金 不能平木 故風火相搏而昏冒 驚悸潮熱 此證皆爲熱甚而風生。

7. 活幼心書²⁵⁾

蓋心有熱而肝有風 二臟乃陽中之陽 心火也肝風也 風火陽物也。風主乎動 火得風則煙焰起 此五行之造化 二陽相鼓 風火相搏 肝藏魂 心藏神 因熱則神魂易動 故發驚也。心主乎神 獨不受觸 遇有驚則發熱 熱極生風 故能成搐 名曰急驚。

8. 醫學綱目⁶⁾

急驚屬木火土實 木實則搐而有力……土實則身熱面赤……治宜涼瀉。亦有因驚而發者 以致牙關緊急 壯熱等證 此內有實熱 外挾風邪 當截風定搐。

9. 保嬰攝要⁸⁾

急驚者 肝經血虛 火動生風 蓋風生則陰血愈散 陰火愈熾 火動則肺金愈虧 肝邪愈盛 宜滋肝血養脾氣。

10. 景岳全書²¹⁾

小兒驚風 肝病也。亦脾腎心肺之病也。蓋小兒之真陰未足 柔不濟剛故肝邪易動 肝邪動則木能生火 火能生風 風熱相搏則血虛 血虛則筋急 筋急爲掉眩反張搐搦強直之類 皆肝木之本病也。至其相移 木邪侮土則脾病 木盛金衰則肺病 木火上炎則心病 木火動陰則腎病 此五臟驚風之大概也……驚風之實邪 惟痰火爲最而 風則次之。

急驚者 陽證也 實證也 乃肝邪有餘而風生 熱熱生痰 痰熱客於心膈間則風火相搏 故其形證暴急而痰火壯熱者 是爲急驚。

11. 醫學入門²⁰⁾

神驚 痰聚發風搐 或因內熱 風生肝；小兒元氣未充 神奮未定 或見生人異物 或聞厲聲響器。驚入心之胞絡 火炎 舍空而聚痰 痰生熱 熱生風 心肝脾病也。又有心內積熱而驚惕 肝內生風而發搐 痰涎壅盛 風熱并作 所以暴烈緊急 心肝病也。蓋心主熱 脾主痰 肝主風 相因而發 謂之驚風痰熱。

內外挾驚 成假搐 不比真搐 閉牙關；多是 外感風寒 內傷飲食 挾驚而成 謂之假搐 非真搐內生驚癇也。

12. 六科準繩¹⁵⁾

小兒急驚風 古謂陰陽癇也。急驚屬陽 陽盛而陰虧 慢者屬陰 陰盛而陽虧 陽動而躁疾 陰靜而遲緩 皆因臟腑虛而得之 虛能發熱 熱則生風 是以風生於肝 痰生於脾 驚出於心 熱出於肝而心亦熱以驚風痰熱 合爲四證搐掣顛反引竄視爲八候。

急驚由內挾實熱 外感風邪 心家受熱積驚 肝家生風發搐 肝風心火 二臟交爭 風氣壅盛 無可發泄。

13. 喻嘉言論²⁶⁾

蓋小兒初生 陰氣不足 性稟純陽 身內易致生熱 熱盛則生風生痰 亦所恒有 乃以驚風命名……徒據小兒八歲以前無傷寒之說 而立驚風一門 殊不知小兒不耐傷寒 故初傳太陽一經 早已身強多汗 筋脈牽強 人事昏沈 病勢已極……

14. 醫宗金鑑¹²⁾

〈驚風總括〉

心主驚兮 肝主風 心熱肝風作急驚

注) 心藏神 心病故主驚也 肝屬木 肝病故主風也 凡小兒心熱肝盛 一觸驚受風則 風火相搏 必作急驚之證也。

〈急驚風〉

急驚觸異心驚熱 或由內鬱火生風 暴發痰盛 或熱極。

注) 急驚風一證 有因目觸異物 耳聞異聲 神散氣亂而生者：有因心肝火盛 外為風寒鬱閉 不得宣通而生者：有因痰盛熱極而內動風者

15. 幼科釋謎¹³⁾

小兒之病 最重惟驚 驚必發搐……心經積熱 肝部風生 肝風心火 二臟交爭 血亂氣壅 痰涎與并 百脈凝滯 關竅不靈 或急或慢 隨其所擾 急由陽盛 慢屬陰凝 急緣實病 慢自虛成。

16. 醫學求是¹⁴⁾

〈小兒急慢驚風論〉

小兒急慢驚風 最為險候 雖病變不一 其實則火鬱耳！夫小兒之火 異于大人。在大人腎庫已開 肝木上升而生心火 膽火下降而化相火。君相兩火 歸納于腎以溫陰精 得以再生男女 此君相二火 已有歸藏也。若小兒形體未充 腎臟尚閉兩火無所歸納。以日漸長成者 全賴此火之運行不息也 觀于幼時之跳跌流動而無欲花 迨及成人 自然沈靜 豈非火之流行所致歟？故兩火偶鬱即易成驚 但火鬱雖同而所因有異。急驚者因外閉而鬱 慢驚者因中虛而鬱。外閉而鬱者由經入腑 其證輕；中虛而鬱者 由腑及臟 其證重也 兒皮毛緻密 感受外邪 衛氣易閉 衛閉則營鬱。肺主衛氣而收斂 肝主營血而疏泄 疏泄不暢肝鬱生風 膽鬱生火 逐見驚搐 故急驚一證 無不由于肺金之不利 肝木之不達也。

17. 吳氏兒科學¹³⁾

〈急驚起源〉

小兒臟腑薄弱 氣血未充 內因飲食之所傷 外受時邪之所侵 正氣偶衰 邪從虛襲 初由口鼻以潛入 繼由經絡以傳佈 病勢鶴張 熱自內生 熱甚侵肝 肝乘風動 於是發為驚狀 此為驚風之起因

〈急驚病理〉

小兒為純陽之體 諸邪感受 化熱至速 小兒又多血氣未充 肝虛易為邪乘準是二因 故急驚之病理率為肝升太過 肺失清降 昔人所謂木旺無制 金氣不伸也 因肝升之太過 故熱勢上炎。

18. 萬病醫藥顧問²⁴⁾

- ① 神散氣亂：目觸異物 耳聞異聲 神散氣亂
- ② 心肝火盛：心肝火盛 外為風寒鬱閉 不得宣通。
- ③ 痰盛熱極：痰盛熱極而動內風

19. 中醫兒科學²⁾

〈急驚風〉

① 外感風寒：風寒之邪 侵襲肌表 初起雖有挾風挾寒之別 但總因邪鬱肌表而致化熱化火 故初為外感風寒 繼則肝風內動

② 感染溫邪：溫邪最易化熱化火 感染以後 往往導致內陷厥陰 逆傳心包

③ 乳食積滯：乳食不節 鬱結腸胃 化熱灼津 血不榮筋 導致肝風內動 俗稱‘食厥症’

④ 暴受驚恐：如乍聞異聲或不慎跌仆等 因突然受到外來的刺激 而致神志不寧 精神失守 出現一時性驚厥。

20. 兒科證治²³⁾

① 感受六淫之邪：小兒為稚陽之體 感受六淫之邪後極易化熱 又因小兒體質薄弱 不堪時邪稽留 不能耐受高熱 以致熱則生風

② 素伏痰火：復傷飲食 停滯不化 內生積熱 引動肝風

③ 小兒神氣怯弱：若目觸異物 耳聞異聲則神散氣亂 而致驚風

III. 考 察

內經에는 驚風이 따로 區別되어 나와있지 않다. 보통 胎病인 癩疾로부터 그 起源을 찾으나 癩疾은 胎兒가 母體의 腹中에 있을 때 母體가 大驚하여 氣上而不下 精氣竝居하여 發生하는 것으로 驚風보다는 癩에 該當하는 것이다. 李¹⁹⁾는 “夫小兒形氣未充 易生恐怖……一切聞所未聞 見所未見皆能致病……此既內經所謂大驚猝恐之症是也. 內經云 大驚猝恐則氣血分離陰陽破散 經絡厥絕 脈道不通 陰陽相逆 經脈空虛 血氣不次 乃失其常.” 이라하였는데 筆者의 所見으로도 大驚猝恐之症이 驚風의 起源으로 더욱 合當하리라 생각된다.

巢¹⁰⁾는 血氣不和 熱實在內하여 驚이 發하게 되며 甚하면 痙攣이 오고 癩으로 變證이 된다 하여 熱을 原因이라 하였다. 太²⁷⁾에서는 內有實熱에 風邪를 加하여 熱과 風邪로 把握하였다. 이로부터 內有實熱 外挾風邪는 驚風의 基本的인 病理機轉이 되어 여러 學者들이 이에 依據하여 說明하였다.^{6,15,17)}

錢²²⁾은 ‘小兒純陽’의 說에 依據하여 小兒의 特徵을 易虛易實 易寒易熱로 認識하였으며 五臟五行의 理論을 小兒科에 導入하였다.⁵⁾ 急驚風에 있어서는 大聲 또는 大驚에 依해 心에 熱이 生하고 熱甚則風生 風屬肝으로 오는 陽盛陰虛證이라 하였다. 또한 熱痰客於心胃로 熱極하면 自然的으로 驚風이 發하게 된다. 劉¹⁸⁾ 또한 同一한 理論으로 說明하였다. 卽 心火를 根本原因으로하여 五臟五行相克에 依據하여 心火暴甚而制金 金衰不能平木하여서 熱甚而風生 故風火相搏이라 하였다. 曾²⁵⁾ 역시 心火肝風의 風火相搏의 機轉에 依해 肝藏魂 心藏神之 魂神이 動하여 發驚搐한다 하였다. 이 세 學者들의 心火, 肝風, 驚, 痰의 네가지 要素가 驚風 發生原因에 있어 根幹이 되어 그 後 여러 學說들이 이 네가지 要素를 利用하여 驚風의 病

因病理를 說明하였다.

樓⁶⁾는 太²⁷⁾에서와 마찬가지로 內有實熱 外挾風邪라 하였으나 五臟五行에 있어서 木火土實에 屬한다고 하였다. 이는 肝主風 心主熱 脾主痰하므로 木火土實이라 한 것 같으나 五行關係에 있어서는 木實하면 木克土하여 土가 虛하게 되므로 木實과 土實은 서로 兩立하기 어려운 關係가 되는데도 여기에서 木火土實이라 하였다.

薛⁸⁾는 錢²²⁾의 學說을 繼承한 代表的인 人物이긴 하지만 風과 火의 相關關係에 있어 肝經血虛를 始發點으로 삼았다. 卽 肝經血虛로 火動하면 첫째로 風生하여 陰血이 더욱 耗散되어 陰火熾盛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制肺金하여 肝邪가 더욱 盛하여지므로 急驚風이 發하게 된다. 張²¹⁾에서도 小兒眞陰不足之說에 依據하여 陰不足으로 肝邪易動하므로 木能生火 火能生風 風熱相搏하는 肝木之木病이라 하였다. 이 둘은 驚風을 陰血不足으로 肝風이 生하여 오는 肝病이라 하였다.

李²⁰⁾는 痰生熱 熱生風 및 內熱風生의 機轉으로 驚風을 說明하였고 外感이나 內傷에 驚이 兼하여 發하는 抽搐은 眞搐이 아니라 假搐이라 하여 驚風과 區別하였다. 그러나 王¹⁵⁾은 內挾實熱 外感風邪로 說明하였고 心이 熱을 받아 驚이 생기고 肝風에 의해 抽搐이 發하는 것이라 하였다. 다시 清代 考證學派의 影響을 많이 받은 喻²⁶⁾는 錢²²⁾의 理論을 根據로하여 內生熱風으로 因한 것만이 驚風이고 外感風寒으로 因한 것은 驚風이 아니라고 主張하였다.

吳¹²⁾도 心主驚 肝主風 風火相搏의 機轉으로 說明하였으며 觸異心驚, 內鬱火生風(心肝火盛) 痰盛熱極 等の 原因에 依해 驚風이 發한다 하였다. 沈¹¹⁾은 肝風心火 二臟交爭의 機轉에 李²⁰⁾의 說明을 利用하여 血氣가 紊亂해지고 痰涎이 生기어 百脈이 막히고 關竅가 通하지 못하여 驚風이 發한다 하였다.

吳¹⁴⁾는 驚風의 實體는 火鬱이라 하였다. 小兒의 皮毛가 緻密하여 外邪를 받으면 衛氣

IV. 結 論

가 閉하게 되고 이에 依해 營血 또한 鬱閉되므로 肝의 疏泄機能이 不暢하게 되어 肝鬱生風 膽鬱生火 하여서 急驚風이 發한다 하였다. 이제까지 驚風의 根本原因이라 看做되어온 心受驚而內生風熱을 완전히 除外한 채 外感邪가 原因이라고 하였으며 또 病理機轉에 있어서도 肝의 疏泄 失常에 依한 膽鬱化火라 하여 心火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卽 衛氣를 主管하는 肺金의 不利와 營血을 主管하는 肝木의 不達로 因하여 驚風이 發生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薛⁸⁾이나 張²¹⁾과 같은 系列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清代 溫病學의 影響을 받은 것이다. 吳¹³⁾에 와서는 溫病學의 影響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 外因인 時邪가 口鼻를 通하여 들어와 化熱하여 經絡을 通하여 傳佈되는 데 小兒는 血氣가 未充하므로 肝虛하여 肝으로 들어가게 되어 肝升太過 하여서 驚風이 發한다 하였다. 卽 肺失肅降과 肝升太過로 因하여 急驚風이 發하게 된다 하였다. 이는 急驚風을 小兒의 急性熱性病으로 認識한 結果이다. 近來에 와서는 더욱 더 範圍를 넓히어 急驚風을 痲疾을 除外한 小兒의 急性痙攣性疾患으로 認識하여 肺炎, 腦膜炎, 破傷風 등을 비롯하여 中毒症狀까지¹⁾ 抱含하고 있다. 이에 따라 外感風寒, 感染溫邪, 暴受驚恐, 乳食積滯 등을 急驚風의 病因으로 分類한다.^{7,16,23)}

以上과 같이 살펴본 急驚風은 成人과는 다른 小兒의 生理病理의 特徵으로 因한 病症이다. 卽 小兒는 臟腑의 發達이 不完全하므로 肉體의 精神的으로 未熟하고 寒熱虛實의 變化가 빠르다. 特히 小兒는 少陽之氣에 該當하므로 熱이 많고 또 邪氣가 熱化하기 쉬우므로 急驚風이 發하게 되며 病勢는 急速하고 形證은 有餘한 陽證 熱證 實證으로 나타난다.⁹⁾ 또는 臟腑上으로는 心火肝風과 가장 밀접하며 近來의 理論에서는 肺主衛 肝主血 肺主血에 依한 것으로 看做되었다.

以上에서 살펴본 文獻들을 通하여 急驚風의 病因病理에 對해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첫째 急驚風의 病因은 外因으로는 感受六淫, 內因으로는 暴受驚恐, 不內外因으로는 乳食積滯 等이다.

둘째, 急驚風의 病理는 다음의 네가지 機轉으로 分類된다;

- ① 內有實熱 外挾風邪 風火相搏
- ② 肺失肅降 肝失疏泄 肝鬱化火
- ③ 心火暴甚而生肝風 二臟交爭 風火相搏
- ④ 痰鬱熱極 肝風內生 風熱相搏

V. 參 考 文 獻

1. 丁奎萬編：東醫小兒科學，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小兒科校室，1983，pp.493-516.
2. 丁奎萬編：東醫小兒科學，서울，杏林出版社，1988，pp.34-35.
3. 許 浚：東醫寶鑑，서울，南山堂，1986，p.637.
4. 洪元植編：精校 黃帝內經素問，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1981，p.177.
5. 洪元植編：中國醫學史，서울，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1984，pp.167-168.
6. 樓全善：醫學綱目，台南，台南北一出版社，中華民國 62 年.
7. 上海中醫學院編：中醫兒科學，香港，商務印書館，1981，pp.140-147.
8. 薛己集 薛己輯：保嬰攝要，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p.607-608.
9. 成都中醫學院編：中醫兒科學(中醫醫學叢書之三)，成都，四川人民出版社，1976，

- pp.185-187.
10. 巢元方：巢氏諸病源候論，台中市，昭人出版社，pp.8-9（卷45）
 11. 沈金鰲：幼科釋謎，香港，萬葉出版社，pp.15-16.
 12. 吳謙外：醫宗金鑑，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1307.
 13. 吳克潛：吳氏兒科學，臺北市，新文豐出版公司，pp.266-268.
 14. 吳達：醫學求是，江蘇省，江蘇科學技術出版社，1984，pp.53-54.
 15. 王肯堂選：六科準繩（幼科），臺北市，新文豐出版公司，中華民國68年，p.73.
 16. 王伯岳外 8人 共編：中醫兒科學，四川人民衛生出版社，1984，p.117.
 17. 劉昉選：幼幼新書，北京，人民衛生出版社，p.272.
 18. 劉河間：河間三六書，서울，成輔社，1976. p.234.
 19. 李經細外 6人 共編：兒科醒，北京，中國書店出版公司，1987，pp.1-3（卷之九）
 20. 李 擬：醫學入門，서울，大星文化社，1989. p.481.
 21. 張介賓：景岳全書，서울，一中社，1984，pp.702-703.
 22. 錢 乙：小兒藥症直訣，宇宙醫學出版社，中華民國51年，pp.27-28.
 23. 曹 旭：兒科證治，陝西科學技術出版社，1979，pp.205-214.
 24. 周邦道：萬病醫學顧問，서울，書苑堂，1978，pp.43-44.
 25. 曾世榮：活幼心書，北京市中國書店，1985，pp.6-8.
 26. 陳復正輯：幼幼集成，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78，p.55，p.59.
 27. 陳昭遇外：太平聖惠方，서울，翰成社，1979，p.2694，p.2708.